

제1주제

예산군 농산업, 희망을 쏘라

조 상 원

(충남발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예산군 농산업, 희망을 쏘라

1. 변화하는 농정, 그 한가운데의 예산군 농산업

1. 농업은 활기차고 농민은 잘 살고 농촌은 살 곳을 계획한 중앙정부

-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자금 42조원, 농특세사업 15조원, 농업농촌 발전계획자금 45조원 등 천문학적 정부재정투자재원 투입
- 현 정부의 농산업 및 농촌에 대한 총투자금액은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3년째 투자(이는 현재까지 국고투자금액의 2배 해당 금액)
- 재정투자만이 아니라 농림공무원, 연구원, 지도사, 대학교수 등 농림수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사인력만도 10만명 초과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UR, WTO, DDA, FTA 등으로 이어진 시장개방에 대한 현실은 농산업의 미래에 대해 「붕괴」라는 말로 대변
- 이는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교수가, 농민단체의장이던 자가 농정을 책임져도 중앙 농정에 대한 불신은 뿌리를 더욱 깊게 뻗음
- 농업인들은 조합의 해산 혹은 합병으로 농협 경영 및 사업의 개혁 요구
- 이러한 농업인 혹은 농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농업인의 데모가 가장 과격하다」, 「가능성도 없는 농업에 돈을 쏟아 붓는다」, 「농업이 개방형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

- 이러한 농정기조와 농산업계의 자세로는 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거나, 농산업에 대한 희망을 말할 논리 전무
- 이러한 농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희망을 공유하기 위한 품목의 선택과 산업차원의 검토·분석을 통한 지역농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대안 필요

2. 재배생산 및 유통부문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한 예산군정

- 충청도의 북서부에서 지역 도로교통의 중심적, 분기점적 지리적 위치에서 경제생활권의 중심은 공주시, 아산시, 홍성군 및 천안시 세력권 영향
- 내포평야로 대표되는 예당호 수계지역으로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자원, 서해안과의 인접한 지역으로 탁월한 온대계절풍이 불어오는 대륙성기후와 하계다우형기후의 특징이 두드러진 대표적 농업지대

구 분	충 남(A)	예산군(B)	B/A
1차 산업	23.6	28.4	1.2
2차 산업	15.9	16.7	1.1
3차 사업	60.5	54.9	0.9
합 계	100.0	100.0	-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6. 예산군 내부자료, 2006.

- 산업구조로는 농림어업과 공공행정부문에서 특화계수가 높으며, 농림어업 28.4%, 제조업 16.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54.9%로 구성

- 이를 토대로 예산군의 산업을 분석해 보건데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이 적합
- 예산군의 지역경제활동인구측면에서 분석하면, 예산군의 농가수는 12,127세대(2005년)로 전체 세대수의 35.0%를 점유, 충남도 전체평균인 21.6%보다 1.5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농업생산이 지역경제활동의 기반
- 예산의 주요한 특산물로는 쌀을 필두로 사과, 배, 쪽파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사과
- 예산군의 사과농가는 예산군 과수농가의 44.8%에 이르는 1,129농가이며, 재배면적측면에서는 과수면적의 68.4%, 총생산량은 전체 과실 생산량의 74.7%에 해당하는 24,034톤
- 예산군의 사과재배면적은 충남도 전체의 59.3%를 차지, 충남 최대 사과재배생산지이며, 총생산액규모는 2005년산 추정 310억원 규모

구 분	농가수	재배면적	총생산량	비 고
전 체	1,860	1,760	31,677	
사 과	1,129	1,218	24,034	충남 1위
배	456	475	6,859	
복숭아	135	41	508	
기타	140	25.8	275.8	

자료 : 예산군 내부자료, 2006.

- 예산군정의 중심은 중앙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농어업과 제조, 관광, 유통을 융합한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을 추구
- 지금까지의 지역산업 발전전략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이상 보완되어 왔으며, 사업계획과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 계획보다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적 사업계획을 강조하는 유형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

- 지역산업구조분석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 및 재배의 산지로서의 기반조성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산지물류 및 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 집중
- 예산군의 농산업관련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충남도종합계획, 충남4대권개발구상,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등에서 「중앙의 선진화된 농림업」의 구현, 맑고 깨끗한 푸른 충남과 첨단녹색산업의 융합지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 21세기 예산장기발전비전전략에서 산업개발부문은 지역산업의 육성, 특색 있는 관광산업의 개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
- 산업개발부문의 산업기반확충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 전술로는 자연친화형산업 육성, 첨단농업벤처산업의 개발 및 육성의 두가지로 압축
- 특히 농산업관련 방안으로는 「농업생산 및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 농업도시 건설」의 표제하에 신활력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 더욱이 예산군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계획 수행
- 그러나,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지역 소득원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을 스스로 고민하게 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미흡
- 1923년부터 사과가 재배되기 시작해 80년의 재배생산지로서의 명성과 사과재배면적은 1,218ha로 충남도 사과재배면적의 79%에 해당하는 주산지이며, 예산군의 향토산업 중 그 경쟁력이 최고수준
- 예산군 사과생산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나 연도별 가격 등락폭이 심해, 재배기술의 개선 및 기술보급과 전천후 농업기반 시설의 모색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능력 향상과 마케팅과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실현 필요

II. 예산군 농산업의 잠재능력, 제대로 알자

1. 농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인자 역량 강화 절대 부족

- 현재까지 예산군 및 관련주체들은 사과사업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관광부문에 지속적 투자 유지
- FTA기금사업 일환의 안전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등 산지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신설 추진
- 그러나 열악한 예산군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인자간 협력네트워크 등은 원활치 못한 실정
- 특히 사과산업 관련 주체들의 혁신마인드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2. 예산군 농산업, 특히 사과관련산업에 대한 잠재능력 평가

- 예산군의 농산업구조는 자연적 여건을 포함 사회경제적 여건도 양호
- 국내 여건만으로 분석하자면 자연여건면에서 예산군은 경북도와 충북지역과는 독특한 기후와 풍토로 맛과 향기가 다른 품질의 사과 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여건은 국내농산물에 대한 극도로 충성적인 국내소비자가 있고, 우리 농산물이라면 수입안전농산물에도 눈 한번 꿈쩍 않는 일반 소비자가 있음

- 대외환경을 주목하면, 자연적 여건은 사과생산 및 국제교역의 주요국을 보면, 전세계 사과생산량의 38%를 생산하는 중국과 칠레, 미국 등이며, 이들중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은 국가는 중국과 미국
- 특히 미국의 경우, 한미FTA체결 당시 사과는 민감품목으로 구분되어 2013년 이후 본격적인 시장가격과 품질만으로 경쟁해야 하며, 현상태의 가격경쟁력은 미국의 65% 수준
-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조건과 자연적 측면의 불리함을 내부적으로 조율한다면(안방시장만 지켜도) 국내사과산업의 시장은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특히 우리의 사과수출시장은 소득 4만불에 소비인구 1억2천만의 일본과 소비성향이 일본에 버금가는 고급중산층만 2억에 가까운 중국이 주변국에 있음
- 예산군의 사과관련산업을 비교분석하면 예산군은 사과재배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연계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농업인을 중심으로 사과관련 가공상품과 체험농장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다양화 추진
- 반면, 이러한 강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의 붕괴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 특히 지속적인 경작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혁신리더의 부족과 사과유통관련 시스템의 부족, 브랜드의 대표성 상실 등 자연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강점들이 상쇄
- 그렇다면, 예산군의 농산업 특히 사과관련산업의 경쟁력 및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분석할 것인가?
- 과연 대규모 농장과 생산비의 절감, 높은 소득 등을 위한 지원 등에 집중하면 예산군 사과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 과연 대규모 농장을 갖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땅을 구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심을 작목이 없는, 즉 판로가 없으며, 일손이 부족하고 투자를 위한 자금의 조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 예산군의 농산업은 다른지역에 비해 물값이 비싼것도, 일손이 더 부족한 것도, 비료와 농약이 더 필요해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 총농경지(과수원)를 다수의 농가가 분산하여 소유하고, 경작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농가소득보전의 문제
- 그렇다면, 노동력부족 혹은 후계인력 부족 및 노령화 등이 국내 농산업 경쟁력 약화를 빚어낸 농산업관련 현실적 농산업의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자연적인 한 해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 그렇다면, 인건비와 농자재대, 유통비용 등 생산비용의 문제로 인한 농가소득의 제고가 어렵고,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이 낮다는 문제의식은 어떤가?
- 네덜란드나 덴마크, 프랑스 등 EU제국이 우리보다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시장의 주요 주체로 수출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일까? 농산물의 생산비는 품질의 상하간 차이가 없지만, 가격형성은 시장 차별화와 국민소득의 변화폭에 따라 가격차이가 더욱 크게 형성. 소비자의 요구는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 소비와 직결되면서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별 자체품질수준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가치 제고는 얼마든지 가능
- 또한 농업인의 소득제고 측면에서 우리 농산업이 외국과 비교해 비교열위에 있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산업으로서 존재해온 농업에 대해 뛰어난 성능의 신품종을 가지거나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고자 하려는 연구와 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적 이유
- 만약 뛰어난 성능의 신품종을 보유했다면,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
- 예산군의 주력 농산물인 사과와 경우, 대목묘의 도입으로 일정 정도 기술 수준에 이르렀으나, 예산군 사과단지의 수령이 노령화 되고 관행적인 재배형태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기술의 도입이 지체되는 등 경쟁력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것이 예산군 농산업 경쟁력의 주요한 저해요인이며, 이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 예산군 농산업 및 사과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여러 논문과 보고서 등의 분석결과를 적용해 보면, 사과산업의 활성화는 농장 및 농업경영개선, 신기술의 개발, 신대목의 보급이 아니라 최종소매업소의 판매대 위를 점유할 대안 모색 필요
- 소매장의 판매대 위에 있는 농산물은 단순히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라, 그 농산물이 판매대 위에 올 때까지의 모든 사람과 기관, 상인 등 시스템이 만들어낸 「시스템상품」
- 즉 현대의 농산업은 단순히 농업인이 노동력과 영농자재를 투입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가 아니라 농가의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 생산이후의 관리기술과 물류시스템, 브랜드파워와 마케팅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농업 및 농정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는 「고차원 산업」임

3. 지역경제, 농산업, 사과산업만 어렵고, 다른 분야는 희망이 넘치는가?

-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평균 12조원이 넘는 국고예산을 농림수산부문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에서 매년 1조원이상의 이익을 내고, 대도시 지역의 농협들 중에는 적당한 구실을 찾지 못하면서도 연간 수십억원식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농협이 많음
- 예산군의 경우는 그간 중앙단위 발전계획 및 충남도의 종합계획과 장기발전비전 등에서 첨단녹색산업의 융합지대로 주목받으며 농산업의 생산 및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

- 더욱이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을 통해 상대적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떨쳐버릴 계획들이 추진
- 예산군의 산업구조는 농산업 및 사과산업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주위의 천안, 아산, 공주, 홍성, 당진, 서산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와 시장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과 관련해 특별히 어렵다고 단언하기는 무리
- 때문에, 도시의 젊은이들의 구직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걱정은 끝이 없음
-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연령 54세에 직장으로부터 퇴직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 등 큰돈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활동으로부터 손을 놓게 됨
- 이처럼, 농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 여건상 일반산업의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발생
-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도 남다른 노력과 특별한 경영노하우 및 기술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대박을 터뜨린 농업인도 다수 존재
- 예산지역에서는 모양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장석윤씨와 사과를 비롯 각종 잼을 생산하는 예산농산의 배규희씨 등이 농산업분야에서의 대표적 성공농업인으로 유명

Ⅲ. 예산군 농산업, 희망일까 절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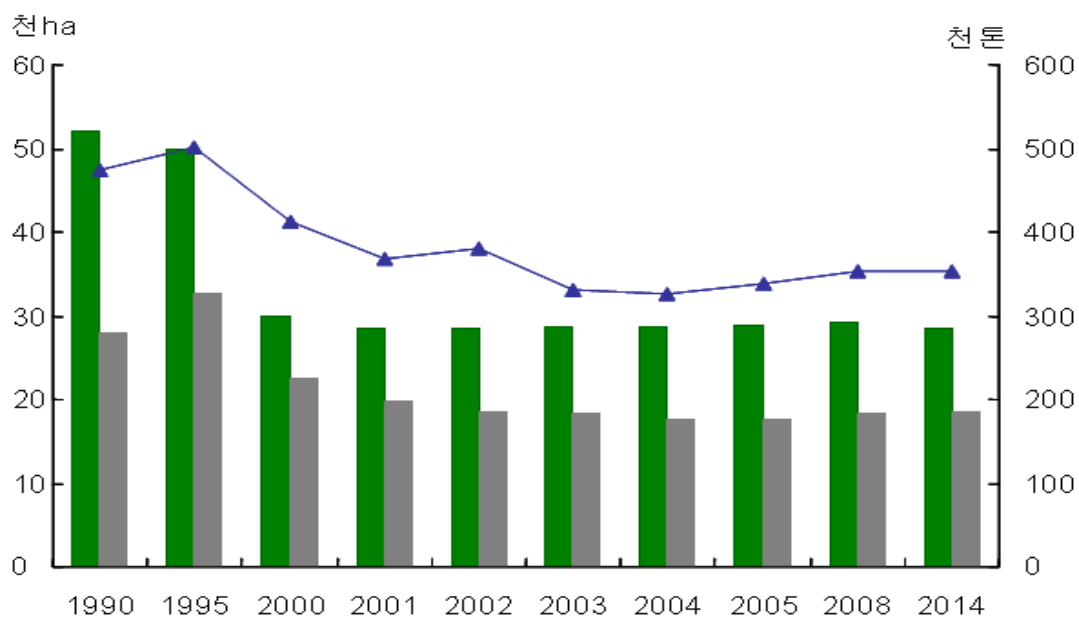
1. 지역농산업이 가지는 지역자원에 대한 다른 접근

- 충분한 농업자산과 잠재력, 가용재원을 두고도 농산업분야가 여타산업군에 성장속도 및 총부가가치크기 등에서 열위에 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선, 개별경영체 단계에서 이제까지의 우리는 농산업의 경쟁대상을 글로벌시장으로 선택하고, 국제경쟁력(수출농산물 수준)의 경영규모와 생산비를 그 척도로 삼음
- 연구기관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기술이 아닌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구미에 맞는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
- 대학교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자형 인재의 양성을 도모하고 전문화를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고등실업자의 양성소로 전락
- 농협중앙회는 구·판매 및 이용사업 등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행처럼 신용 및 공제사업(돈장사)과 자산관리에만 치중
- 농업인들은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당면한 과제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거나, 정책자금의 저리융자를 통한 부채탕감 등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조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도전의식과 농산업에 대한 프라이드와 주인의식을 갖고 연구하고 탐구하지 못함
- 농산업의 비경제적가치(공익적 기능)를 연간 수십조원이네, 백조원이네 하는 추정과 분석결과로 타산업의 경제가치에 준한다는 홍보를 제아무리 멋지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하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기는 난항

2. 예산농산업관련 지역자원(사과를 중심으로)의 재평가의 길

1) 사과산업의 현황과 전망

- FTA 등 수입시장 개방확대로 우리나라의 사과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 1993년 사과 생산량은 50만톤을 초과했으나 2005년에는 37만톤으로 감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사과생산량이 중장기적으로 소폭 증가하여 약42만톤 수준이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국내 소비 과일류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순위는 사과 47.5%, 감귤 27.8%, 포도 9.4%, 배 5.4%의 순으로 조사, 국내소비자의 절대적 선호과일은 사과로 향후 시장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

- 예산사과는 해양성 기후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우수한 토질에 기인하여 다른 지역사과보다 당도와 경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과생산에 매우 적합
- 예산지역 생산량의 약 70%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품질과 당도가 높아 소비자, 도매시장 등에서 선호
- 1998년에는 전국 최고의 왜성사과묘포장을 조성하여 우량묘목을 저가에 생산·공급함으로써 키낮은 사과원 및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 사과생산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구 분	농업기술센터 대목포장	키 낮은 사과묘목장
위 치	예산읍 신례원리	삼교읍 목리
조성년도	2003	1998
면 적	17,256m ²	99,174m ²
생산규모	대목 150,000본/년	대묘 100,000본/년 신품종 접수 100,000본/년

- 농금조합과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응으로 최고가로 거래되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무농약 사과를 생산하는 등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실현, FTA 등 농산물수입개방의 대응모델적 성과
- 특히 1995년 이후 재배면적은 연평균 5.5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은 껍질째 먹는 사과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사과 생산량이 연평균 3.97% 증가 추세
- 예산군 사과생산의 특징은 재배면적 1.0ha 이상이 70%이상으로 평균경작면적이 1.2ha로 상대적 큰 규모의 과원 경영(전국 평균 0.6ha)
- 농가수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경영자의 연령대는 50대가 약 43%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가 32%, 40대가 24%로 나타남

2) 사과시장의 무한경쟁과 제품화시장의 미개척

- 예산군내 사과를 원료로 한 제품가공산업체는 예산농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 이는 예산사과의 시장접근성이 매우 높게 평가한 측면과 지속적 사과산지로서의 명맥유지와 신규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도전의식 부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
- 사과 생과시장은 국내산은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연구회 등의 역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예산사과의 경우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다는 인식에서 독자적인 시장개척과 점유율 유지를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는 유형의 발전 모형
- 더욱이 생과시장은 이미 1993년 이후 무한경쟁시장에 준하는 가격형성과 결정과정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파일렛시장의 필요와 더불어 신규시장의 개척이라는 과제를 안김
- 그러나, 예산군 사과산업의 현황을 분석하면, 매년 예산지역 생산 사과의 10% 정도만 지역내에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에 출하·판매되는 70%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농가에서 다양한 식품의 부재료로 사용 중
- 이처럼 생과시장의 무한적 경쟁과 신규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상품화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유형자산화하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현실적 한계와 미래적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예산사과의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목표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생산, 물류, 가공, 판매, 홍보 및 연구기능을 통합한 강력하고 현장중심적인 지역농정의 시스템화가 필요

3) 희망의 빛줄기가 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찾아서

- 일반농업인들의 작은 소망은“어떻게하면 도시근로자들만큼 잘 살고, 일반국민들로부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 모색

(1) 우선, 우리의 지역농산업은 행정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의 의지와 크게 무관하게 농업인과 농협의 역할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지며, 계획적인 작부체계나 생산, 수확 후 관리, 물류, 제조가공, 판매, 홍보 등이 농업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특징

- 그러나,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경영기술을 개발한 미국, 일본, EU의 많은 나라에서는 농장에서부터 최종소매단계까지 통합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융합형 시스템 농정을 일찍부터 도입,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함
- 즉 지역농업인의 수평적 연계통합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차기년도 생산과 영농일정까지 숙의하고 합의함을 통해 지역내 시장의 수요에 대한 대응과 역외출하물량의 추정까지 이끌어내는 고도의 지역농산업매니지먼트기능을 담당
- 때문에, 해당품목과 관련된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과 대 농민지도를 담당하는 전문가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시스템의 한 일원
- 수확 후 홍보 및 판매, 수출, 가공 등은 농민대표가 선임한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시스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이외의 부가가치를 지역주민과 지역농업인의 과외소득으로 전환
- 판매사업에 유능한 주산지의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품목별 연구, 교육,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합 또는 영농회사로 전환, 전국적인 협의체를 형성하는 등 경영단위의 수평적 연계시스템이 구축
- 이는 품목별 전국협의체가 구성, 품목관련 수급조정, 정책의 제안, 수립,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품목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

(2) 둘째, 우리 농산업과 농업인은 수입농산물이 넘볼 수 없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는 산업이요 지킴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함

- 적어도 예산지역을 이미지메이킹하거나 방문하거나 했을 경우 어디서든 아이들이 떡 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국민 휴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해야 함
- 이는 농산물의 품질인증 및 지역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평가척도가 될 것으로, 맑고 깨끗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안전할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신뢰가 형성
- 이는 농산업 이외의 일반국민들에게서 농업·농촌은 국민이 건강을 담보하고, 국민의 휴양공간이므로 보조금과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

(3) 셋째, 희망하는 농민이 필요한 기술 및 기법에 대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은 생산 및 재배부문, 일반 영농기술에 대해서는 타지역 및 세계유수의 국가 농업인들과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을 수준
- 그럼에도 시군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농업관련 지원기관의 교육일정이나 시스템은“아마추어 양성소”와 같은 잡화점식 시스템
- 농업인들의 정확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참여 농업인수 및 교육실시의 계수적 성과에만 급급한 교육이 아닌 전문성 향상도와 활용도 등이 정확히 분석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따라서 희망하는 농업인은 언제나 새로운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새로운 농기계·장비의 조작 및 정비기술, 영농활동과 농외소득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기술의 향상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이러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일정과 시스템을 통해 예산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산업화를 재촉하는 기능은 물론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어가는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

(4) 넷째, 개별경영체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성과 제고측면과 지구단위 협동화단지의 투자효율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예산군 과수산업에 적합한 적용가능한 이상적 경영모델 개발 필요

- 예산군 과수산업 특히 사과산업은 생산과 재배의 개별경영화를 줄기차게 고수하여 농업인 스스로의 자생력은 물론,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약함
- 이는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투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개별경영체를 포함한 지역경제주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이상적 협업화 모델(지역최적화경영모델)의 개발 필요
-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분 가능하나, 예산군의 경영형태별, 지구별, 경영모델별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는 시스템 필요

IV. 예산군 농산업을 레드카펫으로 가는 길

- 우리의 농산업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던지는 말이 “농업은 사양 산업이고, 우리 농업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고정관념
- 이는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실천적이지 못한 정책을 만들어낸 정치인과 중앙의 무책임한 관리들, 경제성 우선 논리만을 고려한 분석과 추정의 귀재들인 연구자들의 자기회피성 발언에서 비롯
- 그러나, 우리 농산업을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앙의 최고정책결정자로부터 정책의 적용자인 농업인에 이르기까지 살고자하는 의지와 잘살아보겠다는 오기의 결정체
- 앞에서 열거한 부정적 견해를 극복가능한 과제라는 의식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물류 및 마케팅 체제를 갖춘 “작고 강한 산업의 요정”이 될 수 있음
- 예산군의 지역농산업 특히 사과관련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 가능
- 지역농산업이 개별경영체가 아닌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계하고 서로 상생할 수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산업화 전환, 필요한 기술과 방법 습득을 통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정착이 과제
- 그렇다면, 예산군 지역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의 3가지 과제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1. 최적조건의 농산업 지원네트워크 조건 극대화

- 예산군 지역농산업은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자원의 분포를 살펴볼 때, 매우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기반과 R&D 및 교육 등의 여건이 취약하여 산업의 지역적 집중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이러한 과제는 서해안시대를 맞아 동북아권과의 교역확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군은 당진군과 더불어 산업중추도시로 변모할 기회
-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 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산업지대화의 생산기지화로의 전략을 피하고, 농산업으로서의 청정과 안전성을 담보한 발전전략의 비전을 펼치면 가능
- 우선, 지역혁신인자의 역량을 분석해 보면 예산군은 농업바이오 산업의 메카로서 지리적, 산업적 분포가 최적지
- 연구기관 및 기술지원센터그룹면에서 평가할 때, 예산군을 비롯한 인접지역의 연구기관은 대부분 농축산업 및 생명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이 위치하고 있음
- 특히, 충청남도 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업기술원과 지역농산물의 산업화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존재
-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서는 농업과 지역개발, 농산물 가공 등 농업관련 핵심역량을 가진 대학으로 특화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 대학 존재
- 또한 인근의 시군에는 혜전대학, 홍성기능대, 청운대, 순천향대, 폴리텍Ⅳ대, 한서대, 신성대 등이 분포, 최강의 진용 포진
- 문제는 이러한 특화된 지역혁신인자들과의 연계관계가 약하며, 무엇을 통해 연계할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 연구용역이나 자문, 중앙단위 사업계획서 준비시 연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점한 몇몇 인사들에 의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역경제파이를 확대시키지 못함
- 이는 예산군의 자체적 문제가 아닌 지역에 산재한 혁신인사들간의 연계의지에 대한 자기반성과 역할 재평가가 필요
- 특히, 지역농업의 산업화를 목표로 출발한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새로운 농업기술 및 보급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술원과 기술센터의 시대 부적응, 대학 및 연구소의 자기방임적 태도는 예산군의 지역농정을 여타 시군과 다르지않은 평범함으로 전락시킴
- 이를 이어주고 맺어줄 기능은 개별 연구자 및 지원기관의 책임자의 몫이나, 혁신인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는 예산군의 아이디어
- 농촌 및 농산업관련 중앙단위 지원사업이 봇물처럼 터진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군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면
- 예산군은 그림으로만의 연계네트워크가 아닌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혁신인사가 네트워크 활동의 장을 만들고
- 그곳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며, 다이렉트컨설팅이 될 수 있는 모임 주선 필요
- 일례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 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산군 사과포럼을 홍보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농산업 및 관련 전후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육성 요건

2. 농산업부문의 특화계수 극대화는 안전성 확보로 직결

- 예산군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업·림업·어업부문이 6.24로 나타나, 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
- 이는 산업구조상 취약한 산업구조로 평가 할 수 있으나, 지역 최대 특화작목인 사과과수산업에는 최상의 결과
-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평균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웰빙과 로하스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지연산업 육성의 키워드
- 예산군의 산업구조상 공해유발산업군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생물·바이오산업군의 집적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세대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용이
- 사과산업의 경우, 예산군의 사과는 당도가 높아 서울 등 대도시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높고, 단위당 가격형성에서도 비교우위 점유
- 그러나, 신세대 소비성향은 웰빙과 로하스로 잔류농약과 성분검사를 만족시킨 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품으로 급격히 전환
- 지역적 특화도와 상품의 선호도가 소비시장의 신호에 적합할 수 있도록 고품질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농산품의 생산을 위한 체제도입 시급
- 개별경영인의 의지와 투자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천적 계획이 가능한 경제활동 단계별 그룹핑(Grouping)과 조이닝(Joining), 네트워킹(Networking)이 긴급
- 이를 통해 농산품의 생과시장 점유율 관리 및 아이디어 상품 개발 능력의 향상을 통한 지역공동협업경영체(연계형 농업생산법인)의 발굴 및 육성 필요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농산품의 수급을 조절가능한 체계가 수립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품의 생산지에 대한 중앙의 지원 및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정부투자 저항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필요 기술 및 방법, 스킬의 습득은 전문화 교육시스템으로

- 농협, 농촌공사 및 유통공사, 기술원, 기술센터 등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술의 반복 혹은 아마추어 양성
- 1960년 이후 농업 및 농촌, 농업인 의식제고 등 다방면의 전문가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와 재원과 자산 등이 농산업현장에 문제해결과 애로해소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편
- 기술원, 기술센터,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하고자 하는 의식있는 농업인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컨설팅과 온라인교육에 의존
- 기술원, 기술센터 등은 일반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일반농업인이 일정수준까지의 농업정보, 기술 등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최적화
- 지역농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전문화되고 구분된 전문인의 전문적 교육시스템의 체계 필요
- 품목은 다르나 지역인삼경영체의 연계형영농조합법인 형성에 농업기술원과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박사급 인력이 경영컨설팅과 경영전략 수립, 판매 및 마케팅 전술 모색 등의 맞춤형 컨설팅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경영개선효과를 확실히 보이는 것 좋은 예
- 사과과수산업에서도 단위경영체들의 연합체를 조직하고 연계법인의 경영컨설팅을 위한 전문가가 소집되고, 이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면
- 시장 및 경영교육이 심화될 수 있는 시간의 절약과 시행착오의 수렁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